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매사추세츠의 인구가 줄고 있다. 지난 팬데믹 동안 가장 많은 수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주 소득세가 없는 뉴햄프셔로 이주했다. 사진은 매사추세츠에서 뉴햄프셔주로 넘어가는 3번 도로

매사추세츠를 떠나는 주민들 늘어, 팬데믹 후 11만명

비싼 집값, 높은 생활비용, 주 소득세 등이 가장 큰 이유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 1년만에 5만7천명 엑소더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고 물가, 뼈대한 생활비용 등으로 인해 팬데믹 동안 매사추세츠를 빠져나간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글로브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2020년 4월 이래 1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매사추세츠를 등졌다. 특히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단 1년동안 5만7천명의 주민들이 미국내

타도시로 이주했다. 매사추세츠 엑소더스다. 마크 멜링크 유매스 도나휴연구소의 경제 및 정책연구 소장은 “경악할 만한 수치”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이같은 인구동향이 현재 MA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더욱 더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염려했다. 매사추세츠는 수많은 >>8면으로 계속

한국계 지나 권, MA 공중안전보안 행정청 차관으로 임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계 베테랑 검사인 지나 권씨가 21일 매사추세츠 공중안전보안행정청(Executive Office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EOPSS)의 법집행 차관에 임명됐다.

공중안전보안행정청(EOPSS) 테렌스 라 이디 장관이 임명한 권 차관은 지난 15년간 검찰과 법집행기관에서 근무해왔다. 권 차관은 사이버범죄, 인신매매, 마약밀매, 무기 밀매, 공무원 비리, 보험 및 고용사기 분야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 왔다.

권 차관은 주 법무부 출신으로 공중안전보안행정청(EOPSS)에 합류했으며 강력범죄 부에서 대형 수사, 기소 및 항소 사건들을 감독하는 부장을 역임했다. 범죄부장으로 재직시 권 차관은 의회에 범무 및 경찰 개혁에 대한 의회 정책 및 입법에 >>3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를 뛰어 넘는 감동과 기쁨, 압도적인 스케일, 통념을 깨는 구도”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박대성 화백 전시회 단체 관람 다트머스 대학 후드 미술관에 전시중, 3월 19일에 전시회 마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숙, 회장 김병국)는 지난 2월 18일(토), 뉴햄프셔 주 해노버에 위치한 다트머스 대학교의 후드미술관을 방문하여 박대성 화백의 “먹의 재창조” (Park Dae Sung: Ink Reimagined) 전시를 단체로 관람하였다. 협회 이사들과 임원진 그리고 렉싱턴 아츠 앤드 크래프트 센터의 웨인 데이비스 이사장을 포함한 약 50명의 후원자들이 참여하였다.

1945년생인 박대성 화백은 전통 한국 동양화에 참신한 현대기법을 도입하여 독보적인 화풍을 이룬 한국의 거장이다. 유년시절 전쟁 통해 부모를 여의고 왼쪽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 등에서 수학하고 유럽, 히말라야 산지 등 전 세계를 여행하며 영감을 받아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대작들을 창조하

였다. 후드미술관에는 벽 한면을 채우는 대작 여섯 점을 비롯하여 총 24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입구 쪽의 전시실에는 시원한 공간감을 주는 구름과 폭포가 등장하는 “한라산”, 전통 수묵화 기법으로 그린 치솟은 소나무와 탐이노랑색의 거대한 달과 그림자와 결합되어 신비함과 생동감을 주는 “삼릉비경”, 비상하는 독수리의 시점에서 그린 듯한 대담한 붓놀림의 “천지인” 이 전시되어 있으며, 또 다른 전시실에는 섬세한 터치와 “새”, “공작” 등의 소품들 그리고 곡선, 직선 및 몇 가지 색상이 울동적으로 어우러진 “화우” 를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전시실에서는 눈 덮인 불국사를 대담한 여백으로 처리한 “불국 설경” 과 10미터 길이의 방대한 “금강 설경” 이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꼼꼼히 쓴 서예 작품들과 옛 도자기를 그린 “고미

” 도 눈여겨볼 만하다.

“먹의 재창조” 는 전체적으로 대범하며 획기적인 전시이며 큰 규모의 작품들이 많은데, 박 화백의 섬세하고 빈틈없는 테크닉이 그의 모든 작품에서 촘촘하게 드러난다.

이 전시는 예술협회 자문 이사이며 다트머스 대학교 교수인 김성림 박사가 수년에 걸쳐 기획하고 큐레이터로 일한 결과물이다. 김 박사는 “전통 수묵화를 현대의 한국화로 재창조한 소산 박대성 화백의 전시를 기획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다트머스 대학교와 후드미술관, 코리아 파운데이션과 가나문 화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보스턴에서 한국미술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 해주시고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큰 힘을 얻었다. 문화 선진국 한국의 자부심을 느꼈다. 이번 전시는 미국에서 한국

▶▶3면으로 계속



“삼릉 비경” 앞에서 단체사진




(위) “불국 설경” 을 설명하는 날리 큐레이터, (아래) “금강 설경” 을 감상하는 일행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한국계 지나 권, MA 공중안전보안 행정청 차관으로 임명

▶▶1면에 이어서

관한 자문을 했다. 또한 FBI의 합동 테러리즘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일했으며 미 법무부 인권태스크포스에서 지도부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권차관은 주공중안전보안행정청의 차관으로 매사추세츠 주 경찰, 지방경찰 훈련위원회, 그리고 그랜트 및 연구 사무소와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분야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테렌스 라이디 장관은 “권 차관은 존경받는 리더이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했으며 지역, 주, 그리고 연방 관련 분야와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나 권 차관이 EOPSS에 합류해 기쁘며 향후 공중 안전을 강화하고 핵심적 개혁을 수행해 힐리 주지사의 비전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차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힐리-드리스쿨 행정부와 라이디 장관의 신임 하에 차관직을 맡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하고 “우리 기관들은 물론 수많은 관련 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해 공중의 안전을 강화하고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의미있는 진전과 결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지역 및 주 검사로서 재



한국계 베테랑 검사인 지나 권씨가 21일 매사추세츠 공중안전보안행정청(Executive Office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EOPSS)의 법집행 차관에 임명됐다

임했으며 2015년 법무부 보좌관으로 승진했다. 2017년 차장검사(Deputy Division Chief), 2019년 검사장(Division Chief)으로 승격했으며 마약, 총기 그리고 사이버범죄 수사 및 기소를 지휘했다.

주 법무부에 합류하기 전 권 차관은 서퓙지검 지검장보좌관으로서 마약/자산위조부서에서 일했었다. 최초 미들섹스지검에서 지검장 보좌관으로서 로웰지역을 담당하는 역으로서 검찰계의 일을 시작했다. 이후로 웰지법청소년법정을 감독하는 직

로 승진했으며 이후 로웰 고등법원에서 객관 관련 범죄 기소를 담당했었다.

권 차관은 매사추세츠 혐오범죄태스크포스와 아시아어메리칸변호사협회의 회원이다. 그는 전에 주지사의 혐오범죄 및 과학범죄감독원의 일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보스톤칼리지에서 학사를 받은 후 뉴잉글랜드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editor@bostonkorea.com



“고미”를 설명하는 날리 큐레이터

▶▶2면에 이어서

화의 경쟁력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전시와 출판, 강연을 통한 한국예술과 문화를 전파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대성 작가의 작품들은 작년부터 미국의 갤러리와 미술관을 이동하며 전시 중이다. 다트머스 대학교에서의 전시는 3월 19일에 마감되며, 그 후에는 뉴욕 주의 스톤니브룩 대학교로 옮겨서 전시된다.

로드 아일랜드에서 참가한 이사장 정정욱 박사는 “먼 길이었지만 정말 보람 있고 즐거운 구경이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전시를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동행했던 오승은 박사는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과 기쁨이었다. 압도적인 스케일, 통념을 깨는

구도, 기술적인 완벽함이 밑바탕이 되어 작가의 정신세계와 구도자적이고 독자적인 영감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경험을 했다. 21세기의 한국화가 이렇게 생명력 있게 더욱 멋있어진 모습이 놀라웠다”며 여행을 주관한 예술협회와 김성림 교수에게 감사의 말을 남겼다.

Hood Museum of Art, Dartmouth

6 East Wheelock Street, Hanover, NH 03755

갤러리 시간

수요일, 11:00 am-5:00 pm

목-금, 11:00 am-8:00 pm

토요일, 1:00-5:00 pm

입장료: 무료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민주평통 보스턴 협의회 2023년 신년 하례식 및 통일 강연회 개최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오은희 평통간사, 편집부 =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회장 한선우)는 보스턴 소재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2023년 신년 하례식 및 통일 강연회를 2월 19일 개최했다.

오은희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 하례식 및 통일 강연회에서는 한선우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유기준 총영사와 매사추세츠 한인회 장영수 신임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개회식 후 한문수 교수가 “세계 경제 변동과 남북한 경제전망”을 주제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한문수 교수는 김관용 수석 부의장의 “한사람이 꿈을 꾸면 단순한 꿈이지만, 만인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를 인용하며 통일 강연회를 시작했다.

한 교수는 미국경제와 한국경제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해 왔다고 평가 하였다. 미국 경제는 고물가와 더불어 지난 50년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지속적인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높일 뿐 아니라 높은 금리를 상당히 오랜 시간 유지할 것이라 예상하며 원화의 급격한 환율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연했다.

남북한의 일인당 소득 차이는 28배 이상 격차가 있고 1989년 독일 통일시 동서독 간의 일인당 소득 격차가 3배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예상 못한 통일이 된다면 엄청난 통일 비용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해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권리 실태 3개 분야로 나누어 심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소개했다.

2030 청년들의 통일 의식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 통일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남한 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이라며 통일에 관한 관심도 낮아지고 있음



을 설명하였다.

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용구와 함께 민주평통위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으로 “통일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민주평통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

감 있는 통일정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중심 역할을 해달라.”는 석동현 사무처장의 인용구를 연결하였다.

한문수 교수는 이번 강연의 핵심 주제로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인권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축적해야 한다”며 “인권 개선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은 궁극적으로 통일 비

용을 낮출 수 있는 주요 방안 중 하나”라고 하며 “특히 교육권과 건강권 등의 북한 인권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민주평통 보스턴 협의회 자문위원들과 지역 사회 여러 단체장들은 통일 강연회에 이어진 신년 하례식에서 덕담을 서로 주고 받으며 오찬을 나눴다.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AFFORDABLE HOUSING LOTTERY

Ashley Court Condos. 68 Prospect St., Peabody



(6) 2-BR Homes, 1,800 SF Price \$267,800

Max. household assets \$75,000

Max. household income: 1P \$78,300
2P \$89,500, 3P \$100,700, 4P \$111,850

Info Mtg. Zoom: 3/22/2023
ID 840 1254 0976, Passcode 043453

Lottery Zoom: 5/3/2023
ID 819 5575 9923, Passcode 560739

Applications: Kristen Costa (978) 758-0197
www.laassoc.com, kriscosta@laassoc.com
City Hall & Library, Deadline: 4/26/2023





터키 지진피해자를 돕기 위한 구호물품을 모은 다문화 선교교회

다문화선교교회 터키 지진피해자 기부물품 28일까지 매일 접수

이글스트리뷰, 다문화선교교회의 돕기운동 대서특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노스앤도버에 위치한 다문화선교교회가 터키 지진지역 피해자를 돕기 위해 기부물품을 28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다문화선교교회는 모든 기부물품을 터키 총영사관에서 인증받은 메드포드 소재 프리레인지 마켓(Freerange Market)에 매일 오후 4시 기부물품 접수 시간이 끝나면 직접 전달하고 있다.

앤도버 소재 로컬 신문인 이글트리뷰(Eagle Tribune) 기자는 이 교회가 지난주 16일 목요일 교회 주차장에서 기부물품을 받고 있던 모습을 취재해 20일자 신문에 보도했

며, 지역 주민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앤도버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터키지진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경우 다문화선교교회에 기부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언제든지 57 피터스 스트리트(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교회 주차장의 부스에 기부물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터키에서는 지난 2월 6일 대규모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4만3천여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홈리스가 되는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

뉴욕한국문화원, 온라인 한식요리 백김치 레시피 소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욕한국문화원은 23일부터 문화원 웹사이트를 통해 김훈이(Hooni Kim) 셰프의 온라인 한식 요리 특강 “김장, 담그고 나누는 김치 (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의 세 번째 에피소드로 백김치 레시피를 소개한다.

백김치는 고춧가루가 들어있지 않아 김치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밥상에 부담 없이 올려놓을 수 있다. 김훈이 셰프는 단맛이 풍성한 겨울 배추와 달고 시원한 한국



배, 무를 함께 갈아 넣어 담근 백김치 레시피를 보여준다.

김훈이 셰프는 지난 2011년 한식 레스토랑으로서는 최초로 미술랭 스타를 받은 <단지(Danji)>와 올해 뉴욕의 롱아일랜드시티 지역에 오픈한 발효 한식 레스토랑 <메주

(Meju)>, 한식 반찬·식재료 소매점인 <Little Banchan Shop>의 대표 겸 요리사이다.

온라인 한식 요리 특강은 문화원 홈페이지(www.koreanculture.org)를 통해 무료 시청할 수 있다.

국외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K-티처 프로그램

2023년은 한글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운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립국어원은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정규과정 및 단축과정 1~2단계)”을 수강한 전·현직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K-티처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동 프로그램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과

정으로 첫해인 2023년에는 한글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되며, 실습을 포함한 전 과정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kcenter.kore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현재 1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

며, 연간 총 8기의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이다. 2023년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K-티처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kcent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국립국어원 이유원(02-2669-9745) 학예연구사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정부, 중저소득층 위한 FHA모기지 보험료 낮춘다

보험료 30 베이시스포인트 낮춰, 60만달러 대출자 \$1,800 절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FHA모기지 보험료를 인하한다.

카멀라 헤리스 부통령은 22일 메릴랜드 소재 보위 주립대학에서 연방주택관리국(FHA)이 첫주택구입자들과 중저소득층을 위해 FHA 모기지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따르면 정부는 FHA모기지 보험료를 현행 0.85%에서 0.55%로 30베이시스포인트를 낮추게 된다. FHA모기지 보험료 인하는 오는 3월 20일부터 발효하게 되며 단독주택, 콘도 그리고 기타 주택 모든 신규 대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FHA모기지 대출금액이 \$265,000인 경우 연간 약 \$800를 절약한다. 미 전국 단독주택 중간가격인 \$467,700 모기지 대출자의 경우 첫해 \$1,403의 모기지 금액을 절약하게 된다. 만약 약 \$800,000의 모기지 대출자의 경우 첫해 \$2,400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2023년 한해 동안 6억7천8백만달러(\$678 million)가 미국민들에게 돌아가며 약 85만명의 주택 구매자들이 연 평균 \$80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연방주택관리국(FHA)은 모기지를 직접적으로 대출하지는 않지만 대출기관의 모기지의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을 운영한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들이 FHA모기지를 신청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FHA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FHA 모기지는 컨벤셔널 모기지 대출이 여의치 않은 고위험, 저소득 대출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소 3.5% 적은 다운페이먼트로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저소득층, 첫 주택구입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된다.

레드핀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을 구입한 6명 중 1명이 FHA 대출을 이용했으며 이는 2020년 5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중저소득층을 위한 FHA 모기지의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해왔다. FHA보험기금의 지급준비율은 2% 이상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11월 무려 11%에 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3월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보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급준비율은 최소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FHA 국장을 지낸 뒤 주택담보대출 업계에서 컨설팅을 하는 데이비드 스티븐스는 보험료 인하에 대해 "보험료 인하는 즉각적으로 구매 금액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장 봄 주택구매 성수기부터 더 많은 구매자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하를 위해 로비활동을 해온 한 커뮤니티홈렌더스어메리카



스캇 올슨 대표는 "소수민족을 비롯해 중저소득층 대출자들이 주택 구입 비용 문제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행정부가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것 보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택가격은 지난 팬데믹 동안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과 매물 부족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됐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집값에 모기지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매매 능력은 매우 축소된 상태다.

헤리스 부통령은 "오늘 우리는 주택소유가 좀더 저렴하게 가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HUD는 미국인들이 주택구입을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인하했다. 우리가 FHA모기지를 대출하는 구입자들의 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우리는 주택구입에 있어 오랫동안 자리해 왔던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hsb@bsotonkorea.com



뉴햄프셔 도로에서 미끌어진 차량(뉴햄프셔 주 경찰 트위터)

27일 28일 또 한차례 눈비 섞인 눈폭풍 예상

눈비 후 기온 급강하 빙판길로 사고 및 비행편 취소 로건공항 200여 항공편 지연 및 취소, 뉴햄프셔 도로에선 빙판길 사고 신고 이어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눈비가 섞여 내린 후 거센 바람과 급속히 떨어진 기온으로 23일 보스톤을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차 사고가 빈발하고 비행편까지 취소 또는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23일 뉴햄프셔 남부와 매사추세츠 등지에는 겨울 눈폭풍 주의보, 뉴햄프셔 버몬트 메인 등에는 눈폭풍 경보를 발했다. 특히 뉴햄프셔와 메인에서는 6인치 이상의 습설이 내리면서 도로에서 많은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다.

보스톤에서는 1인치가 넘는 얼음 및 눈이 내려 23일 아침 도로를 걷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으며 급강하된 기온으로 고속도로 주행이 어렵게 됐다. 로건 공항에서는 70여편의 비행편이 취소되고 130여편의 비행편이 지연됐다.

기상청은 23일 기온이 화씨 20도 대로 강하해 많은 눈과 눈비를 그대로 얼려서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보했다.

매사추세츠 교통부에 따르면 495번도로 첼스포드 지역에서 오전 7시 트랙터 트레일러 차량이 빙판에 미끌어지면서 사고를 일으켜 왼쪽 차선과 가운데 차선의 통행을 중단시켰다.

교통부는 136개 도로제설 차량을 동원해 길을 치우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터파이크 90번 도로는 현재 최대 속도를 40마일로 제한했다.

뉴햄프셔에서는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무려 60여건의 충돌, 스핀아웃 등의 사고가 보고됐다. 뉴햄프셔 베드포드에서는 차량이 사고로 뒤집히기도 했다.

24일 금요일에는 날씨가 더 추워지며 북극한파가 토요일에 덮치면서 도로를 더욱 열게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추운 날씨는 26일 일요일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2월의 마지막 날이 될 27일 월요일 또는 28일 화요일에는 또 한차례 겨울 눈비 섞인 폭풍우가 예상된다.

hsb@bso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 집매매 8개월 연속 감소, 집값도 하락

봄 주택시장 시작, 오픈하우스 찾는 발길 늘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보스톤 주택시장 경기가 깊숙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1월 주택거래수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3.8% 하락해 2009년 이래 최소를 기록했다. 그동안 판매 감소에도 하락세를 보이지 않던 집값은 전년 동월 대비 2.4%가 떨어졌다.

그레이트보스톤부동산중개인연합(GBRA)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1월 그레이트 보스톤 단독주택 중위 가격은 \$707,250로 지난해 1월 \$725,000에 비해 소폭하락세를 보였다. 월별로도 지난 12월 중위가격이었던 \$740,000에 비해 4.4% 떨어졌다.

GBAR의 엘리슨 소차 회장은 “지나해 모기지 이자율이 두배로 올라 구매자들의 구매능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구매경쟁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일부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몇 달간 주택가격은 오르내림을 반복했으나 모기지 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

해 주택 판매 건수는 1월까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지만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주택시장이 일반적인 계절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침체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1월 한달동안 단독주택은 500채가 팔려 지난해 1월 755채에 비해 33.8%나 하락했다. 월별로 비교했을 때 지난 12월에 비해서 44.8%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콘도의 경우 1월 553채의 주택이 팔려 전년 동월 728채에 비해 24%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은 구매자들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해 이 같은 집값 하락세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매매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30년 모기지 전국 평균 이자율은 6.32%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대폭 상승한 상태다. 이는 그레이트보스톤 지역의 중위가격의 주택을 구입시 1년 전에 비해 \$1,000을 더 지불해야 하는 수치다.

소차 회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봄철은 점차 겨울의 침체에서 주택시장 반전이 시작되는 시기로 주택매매와 주택가격이 동반해 상승한다. 소차 회장은 많은 구매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점차 오픈하우스를 찾는 발길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매사추세츠 전체 주택시장을 집계하는 워렌그룹 (Warren Group)의 발표에 따르면 1월 전체 단독 주택 거래수는 2,379건으로 전년 동월 3,528건에 비해 32.6%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11년 1월 이래 최저 거래수다. 그러나 주단독주택 중간가격은 \$499,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월별로 비교했을 때 지난 12월 \$550,000에 비해 9%하락했다.

워렌그룹의 캐서디 노튼 언론담당 디렉터는 “매물의 부족이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매물부족, 모기지 금리 두배 이상 상승, 높은 생활비로 인해 향후 주택시장의 침체는 몇 달간은 지속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hsb@bsotonkorea.com



미국 집값 총액 3천조원 줄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

주담대 금리 6.62%...작년 11월 이후 최고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의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미국 집값 총액이 작년 하반기에 5% 가까이 줄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이 집계한 미국 집값 총액은 지난해 6월 47조7천억 달러(약 6경2천29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작년 하반기에 4.9%, 2조3천억 달러(약 3천1조원) 줄었다.

이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뒤이은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 주택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5.8% 쪼그라든 2008년 하반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물가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급등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켜 집값이 하락세를 타면서 주택시장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 집값 중간값은 38만3천249달러(약 5억36만원)로 지

난해 5월에 기록한 최고치 43만3천133달러(약 5억6천558만원)에 비해 11.5% 떨어졌다.

기준주택 판매 건수도 지난해 0.7% 감소, 12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36.9% 급감했다.

또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우려로 인해 6.62%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금리 수준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다.

한편 지역별로는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집값 총액이 1년 전보다 20% 늘어났다.

플로리다주 노스 포트새러소타와 테네시주 녹스빌,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도 지난해 집값이 약 17% 증가했다.

반면 높은 집값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보기술(IT) 업계 인력들이 빠져나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집값 총액은 미국 대도시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폭인 6.7% 감소했으며, 오�클랜드와 새너제이도 각각 4.5%와 3.2% 줄어 들었다.

kp@yna.co.kr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권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매사추세츠를 떠나는 주민들 늘어, 팬데믹 후 11만명

▶▶1면에 이어서

미국내 및 해외 유학생들이 많아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들고나는 곳이다. 인구가 늘 변화하고 유동적으로 흐른다. 지금까지는 떠나는 많은 이들을 대신해 해외 이민자들과 신생 아들이 빈자리를 유기적으로 메워 안정적인 매사추세츠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매사추세츠는 2000년대부터 계속 인구가 증가해 2010년대 들어 7백만 명으로 늘었으며 일정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전체적으로 약 10만여명이 줄어들었다. 팬데믹 이후 대규모 도시들은 대부분이 대폭 인구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감소폭은 적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소 이유다. 팬데믹 후 원격 근무의 증가, 높아진 집값, 그리고 비싼 차임드케어 비용, 백만장자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향후 더 많은 인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사추세츠 경제는 브레인파워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고학력 브레인파워의 유실은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멜링크 소장은 “공공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전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매사추세츠에서의 삶이 편하고 쉬워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노스레딩에 거주했던 히친슨씨는 미네소타로 이주했다. 언어치료사였던 히친슨씨는 팬데믹에 실직했으며 남편은 원격근무가 가능해졌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히친슨씨는 지하실의 개조 비용이 감당이 안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남편의 고향인 미네소타에서 5베드룸 콜로니얼 하우스를 5십만달러에 구입했다. 보스톤의 경우 두배가 넘는 가격을 지불해야 구입 가능한 집 규모다. 아이들 학교도 가까웠고 인근에 수영장도 있는 곳이다. 보스톤과 달리 모기지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어 디즈니 여행까지 다녀왔다.

찰스타운에 거주했던 토마스씨와 아내 리슬리씨는 찰스타운의 1천스퀘어피트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2020년 딸이 합류하면서 집이 너무 작았고 좀더 넓은 공간의 집을 찾기 시작했다. 멀리 떨어진 교외의 집을 찾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90만달러의 집에 오퍼를 집어 넣기도 했다.

팬데믹 이후 케이프코드에 있는 부모님도 자주 방문하지 않게 되면서 꼭 매사추세츠에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어지자 노스캐롤라이나에 눈을 돌리게 됐다. 그레이터 랠리에서 크고 저렴하며 골프코스가 있는 곳에 집을 구입했다. 찰스타운에서 지불하던 렌트비보다 저렴하게 지불하고 있다. 10만달러의 소득을 올리던 그들은 과거 37%를 렌트비로 지불했으나 현재는 12%만 지불한다.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내에서 가장 원격 근무자들이 많은 곳 중 하나다. 2021년 23.7%가 원격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주로 95번 인근의 부유한 타

운에 주로 거주한다. 이로 인해 집값이 치솟으며 중산층과 저임금 근로자들은 좀더 먼 곳으로 이전해 좀더 오랜 통근을 하게 됐다.

멜링크 소장은 “소득과, 학력수준, 인종 그리고 원격근무 여부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많은 젊은이들도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통근 시간, 복잡한버스, 전철을 떠나 다른 도시로 향하고 있다. 또한 비싼 렌트비로 이유로 심지어 렌트컨트럴로 인해 아파트 렌트비가 저렴한 뉴욕으로 떠나는 젊은이도 있다.

뉴욕은 매사추세츠보다 더 큰 엑소더스를 겪고 있다. 플로리다주 운전면허 등록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인구는 30만명이었으며 이중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6만5천명이 뉴욕으로부터 이전한 사람들이었다.

베스트브로커스 닷컴이 1,2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8%가 플로리다는 주 소득세가 없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25.2%는 비싼 생활비, 15%는 더 나은 직장 기회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스톤글로브가 국제청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사추세츠를 떠나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은 행선지는 뉴햄프셔(20,046)와 플로리다(19,019)였다. 이 두개 주는 모두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곳이다. 뉴욕과 같은 큰 인구 유출이 매사추세츠에서도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잠재해 있다.



보스톤시 음력설날 공식휴일로 지정

주휴일인 캘리포니아주, 학교휴일인 뉴욕시에 이어 세번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아시아인 고유문화인 음력설날(Lunar New Year)이 보스톤시의 공식 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10부터는 음력설날을 공식휴일로 준수하게 된다.

WBUR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톤 시의회는 지난 2월 15일 음력설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스톤은 음력설날이 주 공식 휴일인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시 학교 휴일로 지정된 뉴욕시에 이어 세번째로 음력설날을 휴일로 지정할 시가 지자체가 됐다.

음력설날은 한국, 중국 베트남 등지의 아시아 국가에서 전통휴일로 준수하고 있으며 보스톤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전통 휴일로 준수되고 있다. 텃 보스톤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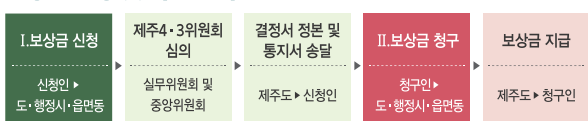
스티벌, 차이나타운의 차이니스 뉴이어 사자탈춤 축제 등이 그것이다.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킨 보스톤 시의회 에드워드 플린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아시아인 커뮤니티는 보스톤시와 미국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미국 역사에서 강한 제도적 인종주의와 차별을 당해왔다”고 말하고 “음력설날을 공식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아시아인 보스톤시에 대한 중요한 공헌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에린 머피 시의원(Erin Murphy)과 루스지 루이지(Ruthzee Louijeune) 시의원 이 공동 발의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보상금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에게는 보상금 결정서 미발송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1,703 명 + 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ju.go.kr>) 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자연이자 지급

- 보상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 9천만원
 - 수형인 :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금 :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 4,5천만원 벌금형 : 3천만원

- 후유장애인 :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천만원~9천만원)

1~3 등급	4~8 등급	9~14 등급
9천만원	7,5천만원	5천만원

- 제외대상 :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모훈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 신청대상
 - 생존 희생자 :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 민법상 상속권자

신청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II. 보상금 청구

-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보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보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보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요가씨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허리통증 2탄 폼롤러 마사지와 스트레칭

저번주 칼럼, 허리통증 없애는 TOP 3 스트레칭 잘 따라해보셨나요?? 이번주는 허리통증 제2탄, 폼롤러 마사지와 통증완화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립니다.

집에 놓고있는(?) 폼롤러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오늘 알려드릴 동작과 유튜브 영상 안의 다른 동작들 참고해 자주 따라해주시고,

집에 없으신 분들은 폼롤러 하나 꼭 준비해서 자가 마사지 해주시길 바래요. 특히 자세가 좋지 않거나 허리통증 있으신 분들에게는 폼롤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동작들은 제 유튜브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허리통증 마사지 끝판왕편 영상을 찾아 꼭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1. Spinal Rotation : 허리 마사지 & 통증 완화

1단계 옆으로 누워 옆구리를 폼롤러에 대고 천천히 앞뒤로 몸을 움직이며 척추를 회전합니다.

2단계 10회정도 반복하다가 두번째 사진처럼 엉덩이를 들고 앞뒤로 롤링해줍니다.

3단계 자극이 너무 강하다면 다시 엉덩이를 대고 왔다갔다 앞뒤, 좌우로 마사지 해주세요.

4단계 두 방향 모두 해주시고, 좀더 빠르고 통증이 있는 부분을 좀더 길게 마사지 해줍니다.

TIP! 영상 속 가이드에 따라 가슴을 살짝 바

다쪽으로 내렸다가 천정으로 보내기를 반복하며 척추의 회전을 제대로 느껴줘야 허리에 남은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어요.



2. Chest Opener : 가슴 어깨 스트레칭 & 자세 교정

1단계 이번엔 두 날개뼈 밑에 폼롤러를 두고 소고양이 자세로 허리를 풀어줍니다.

2단계 5-7회 정도 반복하고 사진처럼 손을 머리 넘어로 뺀고 잠시 휴식합니다.

3단계 뒤통수가 머리에 닿지 않으면 손으로 받치거나 머리 밑에 요가블럭이나 베개, 쿠션 등을 받쳐서 목이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단계 굽은 등, 말린 어깨 교정에 도움이 되니 자주 반복해 주세요.

TIP! 허리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다리를 펴지 말고 무릎을 세우고 발을 바닥에 내려 스트레칭 해주세요.



3. Hamstring Stretch : 햄스트링 & 종아리 스트

레칭, 다리 부종 제거

1단계 먼저 누운 상태에서 허벅지 밑에 폼롤러를 대고 조심스레 엉덩이를 들어 폼롤러를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내려놓습니다.

2단계 한다리를 올려 손을 허벅지 뒤에 깎지 끼고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3단계 깊게 5회 호흡한 후 반대다리로 해주세요.

4단계 중심이 잘 잡히지 않을 경우 롤러 양쪽 가장자리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퍼주면 됩니다.

TIP! 다리 뒷면이 많이 타이트한 경우는 무릎을 좀더 접어도 상관 없습니다.



4. Side To Side Rocks : 허리 마사지, 통증 완화

1단계 두 무릎을 모으고 롤러 위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줍니다.

2단계 천천히 호흡과 함께 몸을 컨트롤 하며 중심을 잡아주세요.

3단계 좌우로 많이 가지 않아도 되니, 허리



마사지한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레 움직여주세요
TIP! 폼롤러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허리에 기분좋은 자극이 오는 위치를 찾는 다음 마사지 해주세요.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2023년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신년 모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신년모임에 동창여러분들과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풍성한 오찬과 함께 맘껏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많이 많이 와 주세요!

일시: 3/18 토 10:30-2:00pm
장소: the Village at Seven Spring Clubhouse
One Seven Spring Ln.
Burlington MA 01803

RSVP to ewhawu.boston@gmail.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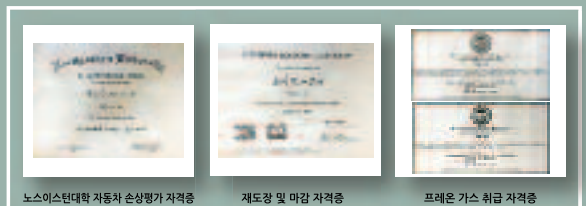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I've helped 35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3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wards:

- 2022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s List

COMPASS

Achieved in 2022

\$22M+

TOTAL SALES & RENTALS

36+

TOTAL # OF TRANSACTIONS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IRA로 미국 전기 중고차값 싸진다...보조금 요건 25만달러 맞추려

중고차업계 쉐보레·닛산 등 중저가 차량 인기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 내 중고 전기차 구매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면서 수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중고차 딜러들이 중저가 차량의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천 달러(약 518만원)를 세액 공제해준다.

블룸버그는 중고차 거래에 연방 정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벌써 보조금 수혜 요건 등이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고 전기차의 보조금은 신차와 달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없지만, 출고한 지 2년 이상에 판매가격은 2만5천 달러(약 3천236만원) 이하여야 한다.

IRA가 발표됐던 지난해 여름만 해도 코로나19 확산과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으로 중고

차 가격이 고공 행진했던 만큼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적었지만, 이후 중고차 가격이 내리면서 수혜대상이 늘어난 상태다.

중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업체인 리커런트 집계에 따르면 IRA가 제정된 지난해 8월에는 전체 중고 전기차 매출의 12% 정도만 수혜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중고차 가격 하락세로 지난해 12월에는 매출의 16%, 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올해 1월에는 20%로 수혜 대상이 늘어난 상태다.

리커런트 최고경영자(CEO) 스톱케이스는 "(중고차) 딜러들이 차량 가격을 2만5천 달러 바로 아래로 정할 강력한 유인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IRA 보조금 정책은 중고차 업체들의 사업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중고 전기차 전문 딜러 '플랫 자동차 그룹' 측은 "바로 며칠 전에 2만6천 달러는 받아야 했을 쉐보레 볼트 차량의 가격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 2만4천900달러로 책정했다"면서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겠지만, 하루도 안 돼 팔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매입을 늘리는 차량은 보조금 수혜 조건인 2만5천 달러 이하로 팔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매물이나 아예 3만 달러 이상인 것들이라면서 "(어중간한) 2만6천~2만8천 달러대 차량은 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고차 업체들은 쉐보레 볼트 2017~2020년식이나 닛산 리프 구형 모델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2만5천 달러 이하에 주행가능

거리 321km 이상인 볼트 차종은 입고되는 즉시 팔린다는 것이다.

플랫 자동차 그룹은 또 정책변화가 소비자보다는 업체들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아직 세제 혜택을 모르고 있다면서도 "분명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고가 중고차 시장에는 아직 정책 여파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고가 중고차 취급 업체 아이드라이브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세제 혜택이지만 우리의 이익

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 "누군가의 세제 혜택을 위해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대차·기아 등의 신형 전기차 모델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자신도 2만5천 달러 이하 매물을 매집할 것이라면서 "향후 2년 안에 그런 때가 올 것으로 본다. (그때가 되면 해당 가격대 차량) 가능한 한 많이 살 것"이라고 말했다.

bscha@yna.co.kr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연준 매파, 재차 "기준금리 상단 5.5%로 0.75%p 더 올려야"

금리 고점 설문조사 결과 지난달 5.0%서 이달 5.25%로 올라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긴축 정책을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 인사)가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0.75%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의 사록 공개를 몇 시간 앞두고 이날 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러드 총재는 "우리가 금리를 5% 위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적절한 최종 금리 중간값이) 5.375%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 5.25~5.5%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의 4.50~4.75%보다 0.75%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준 내부에서는 지난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차를 둘러싸고 입장이 나뉜다. 이 중 시차가 짧다고 보는 매파들은 당장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상 속도를 늦추고 향후 금리 수준을 판단하자는 의견이 인기지만 우리는 아직 연준이 최종 금리 수준으로 부르는 곳까지 가지 않았다"면서 "그 수준까지 간 뒤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 보자"고 주장했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을 가능성

이 커진다는 것이다. 연준은 앞서 지난 1일 FOMC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이는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이었다. 블러드 총재는 올해 투표권이 없다.

다만 연준은 이날 공개된 의사록을 통해 지난 회의에서 "몇몇(a few)" 당국자들이 50bp의 금리 인상을 선호했다면서도 "거의 모든(almost all) 참석자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FOMC 회의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두어 번(couple)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시장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의 2배에 가까운 51만7천개 늘어나고,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데다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상승 폭이 커지면서 매파적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블러드 총재는 16일에도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 기준금리 수준을 5.25~5.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미국 경제가 6~8주 전 생각한 것보다 더 회복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시장이 침체 가능성을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올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소매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하락을 우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것이라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건물

서 "소비자들이 씬스미를 줄임으로써 혜택을 보고 있다. 월마트로부터 들은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이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는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보는 의견이 76.0%로 0.5%포인트(24.0%)보다 많다.

하지만 선물시장에서는 6월 금리 상단이 현재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5.5%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59%로 일주일 전(46.6%)보다 늘어났고, 상단을 5.75%로 보는 의견도 종전 5.7%에서 16.1%로 늘었다. 반면 5.25%로 보는 견해는 39.9%에서 24.9%로 줄어든 상태다.

CNBC는 선물시장에서 전망하는

올여름 기준금리 고점(최종 금리) 중간값은 5.36%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 5.00~5.25%(중간값 5.1%)보다 높으며 중간값 5.375%를 제시한 블러드 총재의 견해와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14~20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플레이션이 더 강력해져 연준이 기준금리 고점을 더 높이고 올해 내내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내년 중반 상승률 전망치가 2.4%(연율 환산 기준)로 지난달의 2.3%보다 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준이 기준금리를 3월과 5월 각각 0.25%포인트씩 올려 최

종 고점을 5.25%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설문조사 당시 최종적인 금리 고점 예상치는 5.0%였다.

또 경기후퇴 우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내년 초 실업률 전망은 4.7%를 기록해 지난달 전망치 4.9%보다 내려왔다.

bscha@yna.co.kr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환 코리안 메디컬 푸어
www.jounye.co.kr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문제"...전기차 올인 고민하는 자동차업체

전환 서두르면 내연기관 수익저하 가능성...소비자 수요 변화에 촉각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산하면서 휘발유 차량 등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종료 시점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고민도 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전기차 올인 시점에 대해 업체마다 다른 시각을 지니고 있다면서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전기차로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면 당장 생산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집 로완 볼보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시장을 잃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 신차 중 10%는 전기차였지만, 선두업체인 테슬라나 중국의 전기차 전문 제조업체를 제외할 경우 기존 자동차 업체의 매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줄어든다.

특히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가격 상승 등 시장의 변화로 전기차를 팔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을 줄일 경우 매출이 떨어져 전

기차에 대한 투자까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자동차 판매 대수로 세계 1위 업체인 도요타의 신임 사장 사토 고지는 최근 전기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도요타는 제너럴모터스(GM)나 포드 등 경쟁사에 비해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적은 업체다.

특히 메이저 제조업체가 아닌 중소기업일 경우 이 같은 고민은 기업의 생존 여부에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일본 스바루 자동차의 미국 자회사 최고경영자인 톰들은 "압박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중저가 자동차로 알려진 스바루는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 중이다.

다만 WSJ은 기업들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전기차 시장에서 뒤떨어지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장 내연기관 자동차로 올리는 수익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을 늦출 경우 미래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koman@yna.co.kr



포드의 전기차 F-150

실업수당 청구건수 19만2천 건...전주보다 3천건 줄어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2월 12일~1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주보다 3천 건 감소했고, 6주 연속 20만 건 이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 견고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건 수준이었다.

현재 고용시장이 과거 호황기와 비교해도 더 뜨거운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IT(정보기술)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리해고

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은 정리해고 이후에 신속하게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65만 명으로 3만7천 명 감소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3.4%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보스톤코리아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경기침체 우려에...기준금리 인상 1년 반 만에 멈췄다

3.50%로 동결...2021년 8월 이후 3.00%p 올린 뒤 '숨 고르기' 미국 긴축 길어지고 환율·물가 불안하면 추가 인상 여지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뒷걸음치기 시작한데다 수출·소비 등 경기 지표도 갈수록 나빠지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소비·투자를 더 위축시키기보다 일단 이전 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나 경기 타격 정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일단 이날 동결로 큰 흐름에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깨졌고, 연속 인상 기록도 일곱 차례(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년 4·5·7·8·10·11월, 올해 1월)로 마감됐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이다.

한은이 여덟 번째 금리 인상을 피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도 배당 증가에 힘입어 겨우 26억8천만달러(약 3조3천822억원) 흑자를 냈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335억4천900만달러)도 작년 같은 달보다 2.3% 적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가 우려된다.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90.2) 역시 1월(90.7)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성장을 이끌 민간소비조차 움츠러든다는 뜻이다.

금통위 결정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경기와 금융시장을 해치는 부

작용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출이 줄어드는 데 소비도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며 "한은이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날 동결로 이번 금리 상승기가 최종 3.50% 수준에서 완전히 끝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유지됐다.

이미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인데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

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져 실제로 자금이 뚜렷하게 빠져나가거나 다시 1,300원을 넘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기대와 달리 3월 이후에도 5%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시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shk999@yna.co.kr,
pdhis959@yna.co.kr,
ssun@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FEB. 24th - MAR. 2nd,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K-BBQ'S BBF, BEST BANCHAN FRIEND, STIR-FRIED SHREDDED POTATOES
 Watch your ordinary potatoes be reborn into a tasty banchan (side dish) that will only complement, not overpower your freshly grilled meat!
 손쉽게 만드는 국민 반찬, 감자채볶음의 황금레시피를 H 마트가 공개합니다!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Honey Ataulfo Mango 허니 아틀포 망고 BOX \$14.99	Malanga 말랑가 LB \$1.2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Korean Singo Pear 한국 신고배 BOX \$34.99
Eddo 토란 LB \$1.99	Seedless Green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2.99	Purple Yam 보라색 고구마 LB \$2.99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4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7.99	Fresh Ox Tail 생 소 꼬리 LB \$11.99
Fresh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SLICED/LB \$6.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2.99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14.99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7.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Frozen Unagi Kabayaki 통통배 우나기 8 OZ/PKG \$9.99	OHGWANG Tender Squid Sticks 오광 촉촉 오징어 5.6 OZ/PKG \$8.99
OHGWANG Mixed Flavor Dried Squid Fillet 오광 삼색 오징어 전기구이 5.3 OZ/PKG \$10.99	OHGWANG Dried Pollock Fillet 오광 구운 명태포 3.5 OZ/PKG \$5.99
OHGWANG Seasoned Monkfish Fillet Snack 오광 구운 아귀포 2.5 OZ \$4.99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Live Mussel 살아있는 홍합 2 LB/BAG \$3.99

SMART CARD MEMBER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16.99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EA/BOX \$10.99
NONGSHIM Shin Ramyun 농심 신라면 4.2 OZ X 4 EA/PKG \$3.99	SUNGGYUNG FOOD Seasoned Sliced Green Laver 성경 지도표 재래식 파래김 0.14 OZ X 20 EA/PKG \$5.99

JINGA Abalone Porridge 진가 전복죽 14.8 OZ X 3 EA/BOX \$10.99	SAMYANG Samyang Ramen 삼양 삼양라면 4.23 OZ X 20 EA/BOX \$16.99	HAIOREUM Soy Sauce Brewed with Kelp 해오름 다시마 간장 60.87 FL OZ \$4.99	PULMUONE Katsuo+Teriyaki Stir-fry Udon 풀무원 가쓰오+철판볶음 우동 32.6 OZ \$6.99	YEcheon Red Pepper Powder 예천청결 태양초 고춧가루 2.2 LB \$29.99
ORGANIC FARM Organic Red Bean 유기농장 유기농 붉은팥 3 LB \$9.99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드셀 궁중당면 1.5 LB \$2.99	SEMPIO Somen Rice Noodles 샘피오 쌀 소면 1.76 LB \$4.99	GOMPYO Co-Brand Wheat Flour 곰표 Co-Brand 밀가루 5.5 LB \$3.99	DONGWON Light Standard Canned Tuna 동원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5.29 OZ X 4 EA/PKG \$8.99
ORION Custard Soft Cake 오리온 카스타드 0.81 OZ X 12 EA/PKG \$3.99	HAIO Yuza/Ginger Tea with Honey 해오름 꿀 유자차/생강차 2.2 LB \$4.99	KüHAUS Fan Style Ceramic Heater 쿠하우스 선풍기형 세라믹 히터 DIAL TYPE/16 IN \$74.99 \$41.99	HELLO HOME Electric Pad 헬로홈 고급형 전기요 SINGLE/SHM-2001 \$84.99 \$59.99	Round Solid Seat Cushion 원형 솔리드 방석 BLUE/ORANGE/GRAY \$6.99 \$4.99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leeg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eve@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ha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슨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kshin@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박성공
617.538.6973
seung@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17.2037
daiana@bostonpremierrealty.com



왕러진
987.444.2043
wangjun@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9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최도우
617.793.7838
choido@bostonpremierrealty.com



전지희
978.866.3248
jeonji@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군
617.543.5728
yijun@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김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최준민
617.877.8387
jun@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수
401.535.5597
hyun@bostonpremierrealty.com



박사순
213.503.0397
saso@bostonpremierrealty.com



박지희
412.537.1402
jihee@bostonpremierrealty.com



이명순
781.893.3412
myeong@bostonpremierrealty.com



샬리림
781.690.4309
shari@bostonpremierrealty.com



한세수
781.999.1214
hanse@bostonpremierrealty.com



박인영
617.515.1182
in@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박
617.640.6695
grace@bostonpremierrealty.com



리인중
617.852.7485
in@bostonpremierrealty.com



손상벽
617.513.3169
sang@bostonpremierrealty.com



박기태
617.721.9088
gi@bostonpremierrealty.com



세민연
617.525.2713
seon@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Song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a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0.449.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ih
617.833.10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63.8347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6.29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i Wang
617.538.7212
lili@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Tommy Woolfolk
917.224.5810
tommy@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78.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897.1191
ritika@bostonpremierrealty.com



Ben Fiorello
617.775.9538
ben@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emma
978.873.0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957.540.150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세이크 김
781.358.0408
seick@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형
857.280.0434
isang@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3798
sasha@bostonpremierrealty.com



Anthony Tran
857.238.4658
anthony@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김기현 해명에도 '울산 땅 의혹' 논란 여전...이준석은 직접 방문

안 "野 가진 카드 많아" · 千 "의혹 해소된 것 없어"... 黃측, 해당 의혹 판결문까지 공개 이준석 "원소유주, 울산 정치인이란 증언도"

(서울·홍천=연합뉴스) 홍지인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이'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종반전으로 치닫는 전대 레이스에서 경쟁 주자들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김 후보는 23일 '팩트체크 프레젠테이션(PT)' 형식 기자회견에서 직접 해당 토지 도면과 울산시 도시계획 보고서를 제시하면서까지 조목조목 반박했고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다.

김 후보는 "고압 송전탑이 있는 비탈진 산지를 '평당 183만원'이라고 추정해 시세가 1천800배 올랐다는 것은 엉터리 억지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거나 터무니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경쟁자인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이날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지지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다. 아직 안 보여준 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내년 총선의 예고편"이라고 지적했다.

천 후보도 "의혹이 해소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이 그냥 '예전에 다 털어냈다' 같은 하나하나 한 얘기 이제 그만하고 명확하게 팔 건지, 판다면 얼마에 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황 후보도 "변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여론조사를 보면 김 후보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 시시비비 가릴 때가 아니라 국민 뜻을 따라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황교안·안철수·김기현·천하람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흥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황 후보 측은 김 후보가 2018년 당시 울산 땅 의혹을 보도한 방송국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문도 이날 공개했다.

재판부는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지 어렵다"고 판단했다.

천 후보를 돕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직접 울산을 찾아 김 후보 소유의 땅을 둘러보고 SNS에 사진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임도를 따라 다녀왔는데 목장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입야는 아닌 것 같다. 지역주민들 말을 들어보니 이 지역은 소 한 마리 키우는 사람 없다고 한다"며 "해당 땅의 원소유주는 울산지역 정치인이라는 증언을 들었는데 좀 더 살펴보고 싶다"고 썼다.

그는 김 후보 기자회견을 겨냥해 "대충 보니 '시세 차이' 1800배가 아니라 200배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슈 대응하면서 총선 하면 망한다"고도 적었다.

그러나 김 후보와 더불어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지지를 받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일제히 김 후보에 대한 방어막을 쳤다.

김재원 후보는 "민주당 측에서 정치공작 하던 청와대의 논리를 끌어와서 전대에서 활용하는 게 온당한가"라며 "땅 문제는 전혀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없이 탈탈 털어서 다 검증받은 부분"이라며 "무리한 의혹 제기"라고 힘을 실었다.

여당대표 후보 지지율 김 44% 1위...안 23% · 천 16% · 황 15%

양자대결서도 金 50.1%, 安 37.6%... 尹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38.1%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에서 김기현 후보가 40% 이상 지지율로 4명의 후보 중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천4명(국민의힘 지지층 4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4.0%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22.6%), 천하람 후보(15.6%), 황교안 후보(14.6%) 등의 순이었다.

김 후보는 리얼미터의 직전 여론조사(2월 6~7일)보다 1.3%포인트(p) 지지율이 하락했으나 1위를 지켰다. 안 후보는 7.8%p 떨어졌고, 천 후보와 황 후보는 각각 6.2%p, 7.6%p 상승했다.

당선 가능성의 경우 김 후보가 52.6%로 과반을 차지했고, 안 후보(24.2%), 천 후보(9.4%), 황 후보(8.0%)가 뒤를 이었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김 후보 50.1%, 안 후보 37.6%로 김 후보가 역

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위원 지지도에서는 민영삼 후보가 14.8%로 1위였고, 김재원(13.6%), 조수진(13.1%) 후보가 10%를 넘겼다. 다음으로는 태영호(9.2%), 김병민(9.1%), 김용태(8.7%), 허은아(6.4%), 정미경(6.0%) 등의 순이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는 장예찬(43.7%), 김가람(9.8%), 이기인(7.8%), 김정식(6.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평가 38.1%, 부정평가 59.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7%, 국민의힘 40.9%, 정의당 1.8%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국민의힘 지지층 ±4.8%p)다. 무선 90%·유선 10%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cs@yna.co.kr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X울산역 연결도로 입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턴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이 광고를 보는 한국연변진흥재단의
정부를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정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eongyangdwan Dabulwi Boston Hanin Seongdang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 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 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교사 / 학생 모집
[교사 모집]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 합니다.
[2022-2023 등록 안내]
등록금 330불+등록비 20불
(한 자녀 330불, 두 자녀 640불, 세 자녀 950불)
*8월 14일까지 등록시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문의: 교장 전화: 617-610-2743
이메일: BostonCatholicKoreanSchool@gmail.com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를살을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튀르키예 (터키)

재난 모금

- 기간: 2023년 3월 4일 (토)까지
- 모금방법:
 1. 모금에 동참 하실 분들은 하단의 페이팔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paypal.com/pools/c/8RznsY83Y3>
 2. 모금 종료후 튀르키예 한인회, 또는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참가하신 분들의 이름과, 모금액을 공지할 예정입니다.(보스톤 코리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일 강한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터키) 지진 재난에 대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회장 한선우)에서도 재난 지원 성금을 모아 전달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터키는 한국전 당시 미국 다음으로 파병을 많이 보냈던 대한민국을 도와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현재는 지진으로 인해 전기 및 수도시설이 파괴되어 전력공급과 식수지원이 어려우며 식료품, 대피시설, 긴급의료시설,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터전을 잃고 추위와 굶주림, 질병 등 2차 재해에 직면해 절망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들을 위해 보스턴 협의회에서도 힘을 합쳐 미약하지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성금 모금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마음으로 참여 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국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70년전 도움을 받았던 나라로서 이번 참사를 안타까워 하며 조의를 표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때 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25) 주식 투자와 도박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2020년 '주식투자 열풍', '주식시장과 판데믹', '주식투자의 위험한 꿈' 등의 여러 제목으로 주식투자 위험에 대하여 칼럼을 작성해서 발행했다. 요약하면 <코로나로 여행, 운동경기, 외식, 등 모든 일상적인 생활이 중단된 상태이다. 재택근무 등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런 무료한 시간에 재미나는 일로 많은 사람이 주식투자로 몰린 것이다> 투자자는 회사 주식을 사고팔기에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국에선 직장인에게 평생직장 개념은 이미 사라졌고 안정된 수입원이 되지 못하고 미래 역시 불안하다. 젊은이들은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너도나도 주식투자 돈을 벌었다기에 빛을 내서까지 투자한 것이다. 한국에서 속도가 매우 빠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주식투자를 하며 '가즈아'를 외쳤지만, 지금은 한강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다.

미국의 투자자도 한국의 실정과 비슷했다. 최근 발행된 재정신문 월스트리지(The retreat of the amateur investors; A pandemic boom attracted scores of Americans seeking gains. Now that some are backing away, the markets risk losing key support, Gunjan Banerji, WSJ, Feb. 4, 2023)에 의하면 한 투자자의 자금이 한 때는 \$1.5 million까지 상승할 시 '본인은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으로 느꼈으며 전혀 이성적이지 못했다고 말한다. 현재 이 투자자는 신용카드 빚, 자동차 융자 빚, 그리고 통장에 남은 돈이 \$6.99라고 한다.

도박하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렵다. 과도하게 마신 술 때문에 아침마다 괴롭고 후회하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중독자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런 심리로 주식에 투자하기에 기업의 가치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

야기다. 하루에 오르고 내리는 주가가격만이 최대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도박화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금융기관 역시 누구나 주식투자를 쉽게 할 수 있다고 부채질한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는 끊임없이 미래 시장과 주가를 예측한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가 증권사의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디어도 주식을 도박하는데 한몫을 한다. 한 경제 신문은 '경기침체에도 갈 높은 간다. 토끼처럼 뛰어오를 종목'이란 제목으로 기사화했다. 이런 기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재정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주식시장을 예측하고 단기 투자를 부채질 하기 때문이다. 하기가 신문사는 독자의 시선을 끌어야 광고 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식시장(Random Walk Down Wall Street)이란 책이 1973년에 출판되었다. 책의 저자는 프린스턴 대학

의 버턴 맥키엘(Burton Malkiel) 교수이다. 책의 요점은 "주식전문가가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나 원숭이가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라는 가치투자(Fundamental Investment)의 어려움을 설명한 책이다. 미래의 유망한 회사를 선택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

주식투자도 우연(Luck)히 투자 돈이 증가하면 본인이 똑똑한 결과라는 자만감을 가진다. 이런 자만감은 이 돈 저 돈 모아서 더 투자한다. 심지어 빚까지 낸다. 그러나 우연은 반복하지 않기에 주식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무지개와 같은 말만 듣고 주식 투자하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한국이나 미국의 개인 투자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주식투자도 돈 벌었다는 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 속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 주식시장 전체에 꾸준히 투자하면 주식시장이 창출하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시장에도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 681년 7월 1일(양력 7월 21일) 문무왕이 사망하였다. 문무왕은 사망하기 전에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장문의 유언(유조遺詔, 삼국사기 권7 문무왕조에 그 원문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을 남겼다. 그의 아들 신문왕은 부왕의 유언에 따라 문무왕을 화장하여 동해 바다대왕암에 수장하였다. 수중에 안장된 능릉은 동서고금에서 유일무이한 수중왕릉(일 것)이다. 문명태후와 문무왕이 연이어 사망하자 그들을 믿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조정의 실세 김흠돌 일파는 방패막이 사라짐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다. 새로이 등극할 정명태자(신문왕)와 태후가 될 자의왕후에 의해 무거운 죄과를 치루어야 될 것은 자명하였기에, 흠돌은 진공과 흥원 등과 함께 공모하여 역모를 일으켰다. 흠돌 일파는 문무왕의 죽음을 비밀에 부치고 왕성 밖에 주둔하고 있던 군사들을 출동시켜 상대등 김공관의 집과 인명전군이 거처하고 있던 아명궁을 포위하여 그들의 손발을 먼저 묶었다(화랑세기에는 "아명궁을 핑계 삼아 인명을 응립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명은 문무왕의 후궁이고 인명전군은 아명의 아들이다).

그러나 비밀리에 하기로 한 그들의 거사는 곧 호성장군 김오기에게 보고되었다. 당시에 많은 화랑도들이 시위삼도(侍衛三徒429)에 포함되어 왕을 가까이서 호위하고 있었고 왕궁과 경외를 수비하는 병사들 가운데도 많이 있었다. 즉 상대등의 화랑도들이 흠돌과 진공과 흥원의 지휘하에 있었다. 그래서 많은 화랑도들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거사에 동원되었다. 다행히 그 화랑도 가운데 평소 김오기를 존경하고 따르던 낭두郎頭 한 명이 거사의 전모를 세세히 알고 있었다. 그는 흠돌 일파의 계획을 김오기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오기는 순지順知, 개원愷元, 당원幢元, 원수元帥, 용원龍元 등과 함께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私兵을 동원하여 시위삼도의 지휘관인 대감大監들을 제압하였다. 그러자 흠돌 일파는 계획의 차질에 놀라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월성을 포위하였다.

당시 김오기와 함께 '흠돌의 난'을 제압한 장군들의 면면을 보면, 순지順知는 역모를 진압한 후 683년(신문왕3년)에 중시로 임명되었다(흠돌이 난을 일으킬 당시에는 김전존이 중시로 있었는데 그는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낸 내당전쟁 당시 대당총관의 한 명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유능한 장군이다). 개원

愷元은 태종무열왕과 문명왕후의 7남으로 695년(효소왕4년)에 상대등이 되었다. 당원幢元은 부모가 태종무열왕과 보통인데, 이찬(2등급)의 벼슬을 하였고, 696년에 중시가 되었다. 무열왕의 장남 김법민(문무왕, 어머니는 문명왕후)의 부인은 보통의 장녀 자의이다(자의의 아버지는 김선품이다). 원수元帥(또는 원사元帥)는 688년(신문왕8년)에 이찬의 벼슬로 병사한 전임 대장大將을 이어 중시가 되었다. 원수는 19세 풍월주를 역임한 김흠순의 넷째 아들이다. 김흠순은 김유신의 동생이다. 흠순은 아들 아흠을 두었는데 셋째 아들 반굴만 사촌인 영광승光(김유신의 딸이다)과 혼인하였고, 나머지 아들들은 모두 17세 풍월주 김염장의 딸들과 혼인하였다. 용원의 가계 기록은 없는데 김염장의 처남(후처의 형제)일 가능성이 많다.

'흠돌의 난'은 결과적으로 화랑도와 화랑도의 충돌이었다.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 흠돌과 진공과 흥원은 화랑의 풍월주를 역임했거나 그에 버금가는 지위에 있었고, 또한 그들의 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반란군에 가담했던 무리들도 전현前現 화랑도들이었다. 동시에 '반란의 역도' 들을 진압한 김오기의 장졸들도 역시 전직 풍월주들과 전현 화랑의 무리들이었다.

429) 시위부는 왕궁에서 국왕을 호위한 부

대인데, 624년(진평왕 46년)에 처음 조직된 것으로 보고있다. 그 후 651년(진덕여왕5년)에 3도三徒로 나누어 재편성하였다. 그리고 '흠돌의 난'이 일어난 후, 685년(신문왕 5년)에 재편성할 때는 종전의 감찰을 폐지하고 장군을 두었다. 장군은 6명을 두었는데 그들의 관위는 급찬(9등급)에서 아찬(6등급)까지로 하였다. 그리고 대감도 6명을 두었다. 대감의 관위는 나마(11등급)에서 아찬까지로 하였다. 그리고 대두隊頭 15명을 두었다. 그들의 관위는 사지(13등급)에서 사찬(8등급)까지였다. 그리고 향項을 36명을 두었는데, 그들의 관위는 사지에서 대나마(10등급)까지였다. 마지막으로 졸추는 117명을 두었다. 그들은 선저지先祖知(조위趙位라고도 하며, 신라 17관위 중 최하위 관등이다)로부터 대사(12등급)까지 임명하였다.

즉 신문왕은 흠돌의 난을 진압한 후 시위부의 위상을 높혀 귀족들로부터의 위협을 막고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감찰 위에 장군을 두었다. 시위부에 소속된 장졸들은 도합 180명이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104주년 3.1절 기념행사

1919.3.1 - 2023.3.1







행사 일정 :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행사 장소 : **보스톤 성 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Zoom ID : 785 059 1183

행사 협찬 : **보스톤코리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 행사 주최 :
-  매사추세츠 한인회
 -  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
 -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  뉴 햄프셔 한인회



매사추세츠 한인회 총회 공고

매사추세츠 한인동포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번영을 기원 합니다. 아울러 제 42대 매사추세츠 한인회 회장 장 영수 이하 임원들 인사 드립니다
매사추세츠 한인 회칙 제 4장 12 조에 의해, 2023년 총회를 소집 하며, 일정과 주요 안건을 공지 합니다

주요 안건

일정: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보스톤 성 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 2023년 한인 회장, 이사장, 임원진 인사
- 2022년 한인회 재무 감사보고
- 2022년 한인회 사업보고
- 2023년 한인회 예정 사업보고
- 기타 안건

2023년 제 42대 한인회는 더욱더 화합하고 2세, 3세가 참여할수 있는 장을 열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꼭 참석 하시어 한인회가 성장할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주시요

총회 당일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임원진 일동

협찬 **보스톤코리아**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미국 내에서 취업 비자 갱신을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및 우편으로 ADIT 스탬프를 발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미국무부는 H-1B 비자, L 비자 및 현재 비자 갱신을 위해 해외 여행이 필요한 기타 임시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비자 갱신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사국 비자 서비스 차관보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Visa Services in 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 Julie Stuft는 Bloomberg Law와의 인터뷰에서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팬데믹 기간 동안 취업 비자 소지자들이 겪었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밖으로 나갔던 이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받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몇 달 동안 해외에 갇혀 있었고 회사와 고용주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Julie Stuft는 미국 내에서 비자 갱신이 가능했던 방법이 2004년에 중단되었지만, 현재 이러한 방법을 복원하면 취업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며, 해외 영사관의 업무량을 줄이고, 해외 영사관에서 전체 처리 시간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정부 관계 디렉터인 Shev Dalal-Dheini는 팬데믹과 비자 처리 지연으로 인해 사람들이 미국 밖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미국 내 비자 갱신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취업 비자 소지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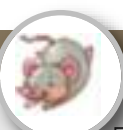
이민국인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는 우편으로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ADIT") 스탬프를 발급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ADIT 스탬프(또는 I-551 스탬프)는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거나 만료된 경우 영주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 이전에는 USCIS에 연락

하여 약속을 잡은 다음 USCIS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이 ADIT 스탬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자가 USCIS에 연락하여 ADIT 스탬프를 요청하면 USCIS는 신청자에게 ADIT 스탬프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이 ADIT 스탬프는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려면 신청자가 이사한 경우 신청자는 USCIS에 주소 변경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자는 ADIT 스탬프를 받기 위해 USCIS 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USCIS 사무소는 ADIT 스탬프를 받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2월 26일 - 3월 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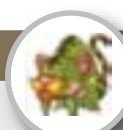
쥐띠 | 큰 것을 얻게 되는

● 운수: 새로운 계기가 생기면서 기대감도 커집니다.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니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욕심을 버리고 소를 희생시키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의외로 큰 것을 얻게 되는 운세이니 크게 남는 장사가 되겠습니다. ● 애정: 평소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가까워지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7, 3일 길일, 1, 4일 주의.



소띠 | 귀 기울여서 들어주도록

● 운수: 머리만 복잡하고 판단이 잘 안 되는 때입니다. 일단 잠시 쉬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호시탐탐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 애정: 남의 말보다 정작 중요한 가족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가족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도록 하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28, 4일 길일, 27, 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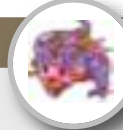
범띠 | 풍성한 수확의 계절처럼

● 운수: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남보다 한발 앞서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 금전: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처럼 곳곳에 재물이 쌓여갑니다. ● 애정: 오로지 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처럼 외식을 하거나 외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6, 1일 길일, 28, 3일 주의.



토끼띠 | 뿌듯하고 기분 좋은

● 운수: 어렵고 힘들 것으로 생각한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뿌듯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 금전: 다른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여보세요. 금전운이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니 열심히 하는 만큼 얻는 것이 커질 것입니다. ● 애정: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6, 2일 길일, 1,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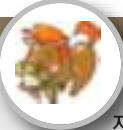
용띠 | 웃을 일이 많아지니

● 운수: 필요 없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리라 생각한 것이 너끈하게 제 몫을 해낼 것입니다. ● 금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이루어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 애정: 웃을 일이 많아지니 집안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3, 4일 길일, 1, 2일 주의.



뱀띠 | 옳은지 그른지 가늠할 수 있는

● 운수: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는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가늠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 애정: 순간적으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후회를 남기는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격한 말을 쏟아내서 상처를 주지 마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1, 4일 길일, 28,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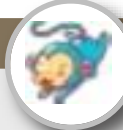
말띠 | 대인관계를 넓히고

● 운수: 이어나 이전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뭔가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지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전망이 밝은 일이 연결될 수 있으니 대인관계를 넓히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수입도 나아질 것입니다. ● 애정: 혼기를 앞둔 자녀를 둔 경우라면 좋은 혼처가 들어올 때입니다. 자손으로 인해 기쁜 일이 있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8, 2일 길일, 26, 1일 주의.



양띠 | 아무리 급하더라도

● 운수: 바늘머리에 실 묶어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충하다가는 일을 두 번 하게 됩니다. ● 금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져서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 애정: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냐고 할 말을 제대로 못 하지 마세요. 차마 꺼내기 힘들었던 말도 이제는 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1일 길일, 27, 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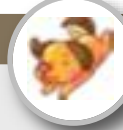
원숭이띠 | 거리를 두고

● 운수: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못 보던 것도 보게 됩니다. ● 금전: 미리 계산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많으면 겉보기에 남는 것 같아도 현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밖으로 숨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속마음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7, 4일 길일, 26, 2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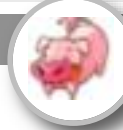
닭띠 | 돌아가는 상황부터 살펴야

● 운수: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니 자책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차라리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 금전: 들어오는 것을 신경 쓰느냐고 빼져나가는 돈을 잘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입 못지않게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 애정: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돌아가는 상황부터 잘 살펴야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7, 28일 길일, 26, 1일 주의.



개띠 | 사랑이 꽃을 피우는

● 운수: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순간 순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일이 연결되거나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계약이나 거래로 인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이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 애정이 샘솟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 3일 길일, 27, 2일 주의.



돼지띠 | 인내심으로 버텨야

● 운수: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를 놓친 것이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금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일이 꼬입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으로 버텨야 합니다. ● 애정: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하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6, 2일 길일, 28, 3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미들턴 드라이클리너에서 셔츠 프레스 경험자 구합니다.
시간 오후 3시-7시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덴탈 랩 매매합니다.
Tel. 508-215-9122

베벌리 타운 피자 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영국엔 킹스맨, 한국엔 킬복순...전도연표 액션 누아르 '킬복순'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킬복순(전도연 분)은 살인청부업자이자 사춘기 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다. 그는 좀처럼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이어나간다.

영화 '킬복순'은 킬러와 엄마라는 주인공의 두 정체성이 주는 아이러니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그 과정에서 영화는 판타지와 현실을 끊임없이 넘나든다.

킬복순은 '작업' 중엔 얼굴에 피가 튀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냉혹한 킬러다. 그러나 사춘기 자식 앞에서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야 마는 쿨하지 못한 어른이 된다.

사립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는 다른 엄마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늦깎이' 극성 엄마이지만, 업계 사람들이 모인 술자리에서는 일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언성을 높일 줄 아는 카리스마 넘치는 선배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영역을 온전히 지키기는 쉽지 않다. 엄마라는 정체성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딸 재영(김시아)은 자꾸만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린다.

킬러라는 직업을 견어내고 나면 킬복순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는 여느 워킹맘과 같다. 자꾸만 커지는 엄마라는 이름은 그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설의 킬러'라는 평판은 추락 위기에 놓인다.

회사와의 재계약 기간이 다가올수록 복순의 고민은 깊어진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자 회사 대표인 차민규(설경구)와의 약속과 퇴학 위기에 놓인 딸 사이에서 복순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러나 상황은 복순이 업계를 떠날 수 없도록 조금씩 옥죄어온다.

영화는 '존 워' 시리즈를 연상케 한다. 킬러라는 직업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고뇌하는 복순의 모습은 아내를 위해 은퇴했지만, 같은 이유



로 업계에 다시 발을 들이는 전설적인 킬러 존 워(키아누 리브스 분)과 겹친다.

그러나 킬복순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특성은 영화 '킹스맨' 시리즈 속 해리 하트(폴린 퍼스)를 닮았다. 깔끔한 수트차림, 군더더기 없는 액션, 일본 야쿠자 조직 두목에게 '공정한 싸움'을 제안하는 모습까지. 시청자는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청부업자임을 알면서도 킬복순을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

타이틀롤을 연기한 전도연의 액션 연기도 주목할만하다. 이번 작품은 전도연이 영화 '헛내: 칼의 기억'(2015)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통 액션이자, 첫 현대 액션극이다. 전도연은 마트에서 산 3만원짜리 도끼부터 칼, 총, 마커 펜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액션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작품의 다른 한 축을 차지하는 모녀 관계에서는 보통의 엄마를 섬세하게 표현해냈다. 베를린국제영화제 예술감독 키클로 샤프트리안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이 작품이 영화제에서 베일을 벗은 뒤 "전도연은 '밀양'과는 또 다른 어머니를 완벽하게 연기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다만 영화의 중심에 놓인 복순과 딸의 갈등이 평면적으로 전개되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재영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했음에도 영화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머

무는 데 그친다.

연출을 맡은 변성현 감독은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2016)과 '킹메이커'(2021)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도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미장센을 선보인다.

킬복순과 야쿠자 두목 오다 신이치로의 대결에서는 기차가 지나가는 사이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아내 만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복순이 속한 회사 엠케이(MK) 건물 내부와 민규의 사무실은 고급 호텔 같으면서도 비밀스러운 느낌을 줘 판타지성을 더한다.

감독은 또 킬복순이 상대와의 대결에 앞서 예측한 경우의 수를 화면에 그대로 구현해냈는데, 이는 마지막 결투 장면에서 빛을 발한다. 하나의 폐쇄된 공간 안에 수많은 복순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다.

구교환의 연기 변신도 신선함을 불러낸다. 넷플릭스 시리즈 'D.P.'와 영화 '모가디슈'로 얼굴을 알린 그는 이번 작품에서 복순의 후배 희성을 연기했다. 구교환은 복순에 대한 애정과 대표 민규에 대한 증오, 아버지를 살려야 하는 아들과 그러기 위해 사람을 죽여야 하는 킬러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을 매력적으로 그려냈다.

내달 31일 공개. 137분. 청소년 관람 불가.

stopn@yna.co.kr

블랙핑크 지수, 솔로 데뷔 MV 국외 촬영... "역대 최대 제작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의 솔로 데뷔 뮤직비디오 전체 분량을 국외에서 촬영 중이라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다.

소속사는 "지수의 솔로곡 뮤직비디오를 극비리에 해외 유희로케이션으로 촬영 중"이라며 "블랙핑크 영상들 가운데 역대 최대 제작비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블랙핑크는 북미, 유럽, 아시아를 순회하는 예상 관객 약 150만 명에 이르는 K팝 걸그룹 역대 최대 규모 월드투어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YG는 "지수는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일정 속에서도 음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녹음을 자처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블랙핑크는 4월에는 북미 최대 음악 축

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신출내기 전도사의 고국 방문기

"물음표를 품었던 여행이 느낌표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불과 20여일이면 족했다"

2018년 봄, 황사가 기승을 부릴 때 서울 땅을 밟았으니 그새 5년이란 세월이 또 지났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전 지구촌을 집단 트라우마에 빠뜨렸던 '코로나 19' 이란 고안 놈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시한부 삶을 살다 갔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아직도 죽음 결의 삶을 이루어 가면서 이전 코로나가 재앙이 아닌 생의 수용으로써 죽음의 불가피함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제대로 배우게 했다.

나 또한 예외가 되지 못했다. 2021년도에 남편을 먼저 앞세운 후 3번의 티켓팅을 뒤로 하고 감행한 고국 방문은 보고픈 이들을 보는 설레임 보다는 끄집어 내어놓기 싫은 혼자 된 슬픔의 감정을 얼마나 추스리면서 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가 내내 숙제였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5년 전의 방문 때와는 '완존' 다른 신분. 이제 갓 발을 들여놓은 신출내기 전도사로서 담임목사와 또 한분의 선배 목회자와 함께하는 고국 방문 사역은 온통 물음표 투성이었

다. 잘 할 수 있을까? 뭘 보게 될까? 여행의 끝은 어떠할까? 갈비를 알지 못하는 여행을 아브라함은 잘도 감당했는데 ... 2023년 나의 첫번째 고국방문사역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다.

서울과 인천, 이천, 여주, 평택, 부산으로 이어지는 목회와 사역의 현장을 담임목사께서는 일부러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무리하게 일정을 감행 하면서 '왕초보 길들이기'에 전력을 쏟는 듯 했다. 교회와 선교단체, 기도원 게다가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미팅 등 삶과 관념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역의 현장을 누비면서 커브를 돌 때마다 때로는 엄청난 속도로 때로는 완만함으로 이어가는 사역의 발걸음은 따라잡기가 버거울 정도였고 덩달아 그 잘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수습해도 남은 내 사역의 인생이 허기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낮고 작은 선교회 형제들의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들만의 희망을 봤고, 나이 60 고개 넘어 70을 바라보는 '애같은 어른들'의 무르익은 눈물 섞인 대화를 보면서 신앙인들의 삶과 진솔함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봤다. 예수의 생명을 그토록 간절히 원해서 안수

하는 담임목사님의 손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모든 사역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진실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았고 그 삶과 사역의 진실을 통해 지워지지 않는 그 울림을 아직까지 즐기면서 나 자신을 '최대치의 나'로 넓혀가고 있다.

'섬김' 이라는 단어의 실질적인 모습을 제대로 봤고 배웠다. 담임 목회자를 향한 부교역자들의 섬김에는 존경이 있었으며, 헌신하는 마음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라는 깨달음은 내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뭇'임을 발견하고 이제라도 내심 그 부끄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살을 찌우던지 빼던지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8) 익히 수없이 들었던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기도한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라는 믿음의 고

백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데... 방문 기간 내내 부족함 없이 누렸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은혜는 섬김과 감사였고 그러 삶을 사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한아름 담고 돌아왔다. 모든 사역의 현장은 어디든 존재하는 주름은 섬세한 배려와 섬김만 있을 퍼지 못할 주름이 없는데... 지면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신앙이 믿음이 관념이 아닌 삶이고 현실인 까닭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이제 무엇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더욱 확연해진 것이다. 이제부터는 밑그림으로 머물 수는 없는 것이다.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뜻에 따라 나를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게 주신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준비되지 못한채 '물음표'를 품었던 여행이 '느낌표'가 되기까지의 거리는 불과 20여일이면 족했다. 물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물음표를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국제 기능올림픽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왕년엔 공돌이라 했다. 공과대 학생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인터넷에서 봤다. 카이스트 학생이 만든 노래란다. 애교가 넘치는데 공돌이의 노래일 수도 있겠다. 똑똑한 학생들의 고민이 엿보인다.

카이스트에 온 지 어느새 4년. 4학년이 됐는데 학점이 안나와 그러저러 전공지식은 늘었는데 성적표엔 A 말고 B, C, D만 가득해

나에게 평점 3.0은 멀기만 해 어디 공대생 뿐이라. 공돌이라 하면 기능공들을 지칭하기도 했다. 그런 젊은이들이 일을 냈던가. 한국신문 구석에 붙어있었는데, 국제기능올림픽이 열린다는 소식이였다. 뭐? 국제기능올림픽. 이름마저 생소하게 들리고, 이전 뉴스 감도 안된다.

사오십년 전이라면 나라 경사였다. 메달이라도 땀다면, 대한유

스에도 나왔다. 입상선수들은 짝차로 카페레이드를 벌이고, 현수막이 나부꼈던 거다. 기술강국이 라 했고, 독일이나 일본과 어깨를 나란하다고도 했다. 이전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던가.

선반旋盤이라 했고, 도장塗裝이라 했다. 국제기능올림픽 종목 중 하나이다. 난 도장이 도장圖章인줄 알고 있었다.인장印章제작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분명 도장을 만드는 일이라면 한국도 당당히 견줄만했을 터. 이제야 쓸모가

덜하다만, 여전히 예술적 가치야 더할 나위없을테니 말이다.

그런데 도장명인이라 사람이 대통령인장을 새길적에 자기이름을 슬쩍 넣었다던가. 어디 이런 해괴한 일이 있을까. 어디 그뿐이라. 궁궐공사 도목수는 궁궐을 지으라 했더니 고급 나무를 빼돌렸다고 했다.

격세지감이라 해야겠다. 한국 대통령의 회견인데 항공우주공학에 관해서다. 이전 달나라도 아닌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우주선을 날려 보낸다는 거다. 물론 2045년이니 수십년 후 일이다.

요즘 한국에선 반도체분야에 인력이 부족하단다. 그런데 상당수 공대생들이 자퇴하고 의대에 다시 지망한다던가. '의대쏠림'이라 하던데, 공학은 알파오메가 일터. 미국도 그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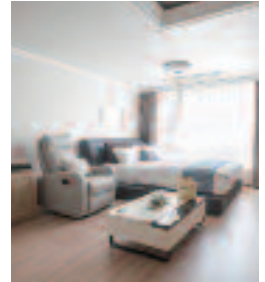
이는 그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 13:55)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힌다리고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벌써 무릎이..."

2030도 안심 못하는 무릎연골연화증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퇴행성 관절염등과 달리 2030 연령층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무릎연골연화증에 대해 휴람 의료 네트워크 세란병원 인공관절센터 양익환부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무릎 통증은 흔히 노인들이 겪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젊은 연령대에서도 무릎 앞쪽의 뼈근함과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30대, 여성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통증은 장시간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차를 탈 때처럼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경우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단단해야 할 연골이 약해지는 무릎연골연화증의 증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무릎뼈의 연골연화' 환자는 지난해 9만 1000여명이었으며 여성(62.5%)이 절반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남성은 20~24세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50~54세, 25~29세 순이었다.

무릎연골연화증이란 무릎뼈의 관절 연골(물렁뼈)이 부드러워지거나 약해지는 질환이다.

주로 청장년층, 여성에서 많이 발병한다. 연골에 단순히 부종이 있는 상태부터 진행하면서 연골 전체에 균열이 가고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 무릎 앞쪽이 빠근하게 아프다.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는 거의 통증이 없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으면 통증이 심해진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러닝 등 체중이 실리는 활동을 할 때도 통증이 나타난다. 때로는 무릎 관절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다. 연골 손상 부위에 따라 무릎의 앞, 양 옆, 오금 등에서 통증이 나타나기 쉽다.

무릎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나거나, 골절돼 관절면이 어긋난 상태 그대로 치유된 경우 등 무릎뼈 연골이 외상에 의한 손상을 입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릎뼈다리관절의 구조적 이상이 있거나,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외상이 없이도 발생한다.

검사는 방사선 촬영을 통해 관절면의 불규칙한 정도, 무릎뼈다리관절의 구조적 이상, 퇴행성 범위 등을 확인한다. 치료는 관절면 변화의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부분 진통소염제, 넓적다리근육 스트레칭 등 보존적 요법을 시도한다. 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만성화되면 수술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청장년층에게 많이 나타난다.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지만 무릎 관절에 심각한 장애를 남기는 경우는 드물다.

무릎연골연화증을 예방하려면 평소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는 등산, 과격한 러닝 등은 피해야 한다. 평소 자세도 중요하다.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거나, 양반다리와 같이 관절에 압박이 가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 체중이 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선 평지 걷기, 수영 등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과한 운동뿐만 아니라 하이힐의 장시간 착용, 무리한 다이어트도 무릎연골연화증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골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인공관절센터 양익환 부장은 "통증이 있을 때는 병원을 즉시 방문해 연골 손상도를 파악해야 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양 부장은 "무릎연골연화증을 예방하려면 무리해서 무릎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러닝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며 "실내자전거타기 등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하고, 체중이 늘지 않도록 평상시 유의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무릎연골연화증"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2023 한국 전통 심포지움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3월 - 6월 첫 목요일
저녁 7시반 - 8시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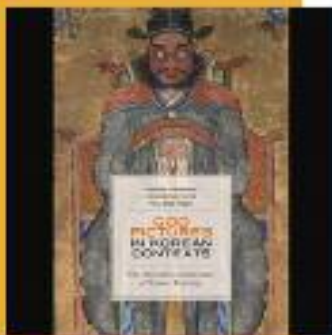
김지연 사회



3월 2일
수묵화
홍성숙



4월 6일
옹기
한향림



5월 4일
무속
Laurel Kendall



6월 1일
수예
Lee Talbot



kcsboston.org 에서 좀 등록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REFRIGERATOR MANUFACTURER
Turbo air

World Headquarters
Long Beach, California

터보에어 서비스 테크니션 직원 모집

세계적 상업용 냉장고 제조사로서 성장한 터보에어 그룹은 미국 시장 2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위 달성을 목전에 두고,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정과 성실을 겸비한 **서비스 테크니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 분야의 관심과 재능 있는 분”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 무경험자도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사내 기술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합니다.

기술을 습득하시면 어떤 불황에도 걱정없이 안정적인 미국 생활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 근무지역: 미주 전 지역 Orlando FL / San Francisco CA / Greensboro NC / Mobile AL / Boston MA

▪ 혜택 의료보험 (Medical, Dental, Vision), 유급휴가, 통신비 지원, 이사 비용 지원, Cash matching program 등

▪ 연락처 Email. kay@turboairinc.com Tel. 305-397-0793 (Text only. 562-922-4141)